

브라질문학의 정체성 탐구에 관한 연구⁺

- 주제 자 알렝까르의 '인디아니즈무'를 중심으로 -

이 광 윤*

I. 들어가는 말

브라질 문학의 중요한 특징은 정체성의 추구란 측면에서 파악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브라질의 문학사는 정체성 획득의 역사로 이해될 수 있다. 즉, 아메리카 신대륙에 이식된 이베리아인(포르투갈인)으로 시작하여, 점차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브라질인으로 변모되어 원주민, '인디오'(Índio)와 '흑인혼혈인'(Afro-Brasileiro)¹⁾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간 브라질의 역사적 맥락에서 문학은 낭만주의에서부터 시작되어 모더니즘시기에 이르는 동안 '브라질정신'(Espírito Brasileiro)²⁾과 브라질

* 이 논문은 1999년 부산외국어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부산외대 서양어대학 포르투갈어과 부교수.

- 1) 식민주의와 노예제도의 정착과 함께 포르투갈 백인이 흑인을 일련의 다양한 선입관을 갖고 포로로 만들어 았는데, 이는 민족문화의 정체성에 요구되는 경쟁적 얀 유럽-브라질인(Euro-Brasileiro)과 아프리카-브라질인(Afro-Brasileiro)의 경쟁적인 불양립성을 구별하고자 하는 것에서 연유하고 있으며 여기서의 '아프리카-브라질인' (또는 흑인혼혈인, Afro-Brasileiro)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흑색의 아프리카적 요소가 가미된 '브라질 혼혈인'을 일컫는 말로 생각할 수 있다.
- 2) 산업화와 과학화, 이민의 유입과 함께 비롯된 삶의 확대 그리고 정치적 다양성의 물결이 일고 있던 당시 브라질의 '현대적 삶의 진보'를 문화적, 예술적으로 표현하려고 하는 지식인층의 자각적인 시위운동이었던 《현대예술주간》 행사를 통하여 첫발을 내딛게 된 브라질 모더니즘운동은 첫발을 내딛게 되며, 이와 함께 '브라질주의'(Brasileirismo)의 추구와 '브라질의 본성' 혹은 '브라질의 특질'(Brasilidade 혹은 Realidade Brasileira)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켜 브라질 사람들

인의 정체성(*Identidade*)을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자신이 누구인가를 표현하고자 하고, 그 점을 밀하고 싶어하며, 고난 속에서 이를 실천해온 브라질인들의 노력이 이 시기의 문학작품에서 밀도 있게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민족주의적 색채를 떼과 동시에 유럽 문학과 어느 정도 변별성을 갖게 시작하는 포르투갈어권 브라질 문학이 출현하게 되는 것은 19세기에 이르러서이다. 그러나 당시 브라질문학은 신대륙의 신화(*Myths*)를 강조하고 이를 보상하고자 하는 소위 ‘경전적 지배의 힘’(*Sacralizing Forces*)에 이끌린 ‘순진한 의식’(*Naive Conscience*)을 보여주는데 그치고 말았다.³⁾ 다분히 과거 지향적이며 보수주의적인 태도로서 문학을 정의하고자 하는 이러한 움직임은 신대륙의 원주민을 종종 중심에서 벗어나 경계(境界)의 위치와 시간을 점하고 있는 타자(他者)로서 곡해하는 모순을 낳고 말았다. 이러한 차원에서 문학은 민족정체성의 구축을 위한 민족구성원 자신의 목소리를 ‘만들어진 이미지’(*Invented Image*)로 한정짓는 결과를 만들고 말았다.

그러나 20세기에 접어들면서 브라질의 가장 독창적이고 현대적인 문화적 독립의 사건으로 기록되는 1922년의 모더니즘(*Modernismo*)운동⁴⁾은 19세기의 비교적 자아도취와 분열의 상태에서 빠져 나오기 시작한다. 이 시기는 모방에서 벗어나 진정한 브라질식 문학의 창조를 위한 토대

의 주관적 삶의 폭넓은 확대를 공고히 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브라질정신’이라는 표현은 바로 이러한 ‘브라질의 특질’, 곧 브라질인의 존재의식과 자기결정을 공고히 하기 위한 민족적 이데올로기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3) Glissant, Edouard, *O Discurso Antilhano*, Petrópolis, Editora Vozes Ltda, 1983, p.193.

4) 현대적인 문화적 독립 또는 예술혁명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모더니즘운동은 19C 世論의 봉괴와 함께 브라질 사회를 뒤흔들기 시작한 일련의 정치, 경제, 사회적 사건으로부터 비롯된다. 경제적으로는 근대화와 병행하는 급속한 산업화 과정과 정치적으로는 ‘소장장교운동’(*Tenentismo*)의 슬로건과 공산당의 창당으로 정치적 투쟁세력으로서 중산층의 대두가 활성화되고 이들 부르죠아 발전의 표현양상은 1922년 《현대예술주간》(*Semanas de Arte Moderna*)이라는 혁명적인 예술운동의 공개적인 시위운동으로 구체화된다.

를 공고히 마련하는 시기이다. 비록 상기의 상반된 가치와 질서의 개념이 혼재하고 있기는 했지만 이 시기 몇몇 시인들(마리우 지 앙드라지 Mário de Andrade 와 오스왈드 지 앙드라지 Oswald de Andrade)의 노력과 열정은 이미 확고한 자기인식으로 향하기 시작한다. 따라서 20세기 초 문학의 흐름은 민족주의적 감정의 자각을 통하여 국가의 본질과 형태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기존의 질서에 반발하는 동시에 여타의 정치, 경제, 사회적 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모색을 시도하여 탈식민주의의 전략에 따라 메트로폴리탄 권력과 경전적 지배문화를 폐지하는 소위 ‘탈경전화’(*Desacralization*)로서 민족적 정체성을 구현하고자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결국 브라질인들이 추구해온 탈식민화 과정은 ‘새로운 인간의 진정한 탄생’이라는 정체성 획득의 과정과 일치하면서, 억압적인 낡은 세계를 해체하고 그 자리에 근원의 낙원 같은 세계를 건설하려는 집단적 열망의 표현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점에 주목하면서 브라질 문학의 중요한 특징을 정체성의 추구라는 측면에서 파악하고 브라질의 문학사를 정체성 획득의 역사로 이해하면서 브라질 문학에서는 사회의 구성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구체화하고 있는지를 고찰함을 그 목적으로 하며, 그 접근 시각으로는 기존연구의 일반적인 경향인 ‘브라질 문학과 민족주체성의 상관관계’의 입장에서 벗어나 ‘정체성 탐구의 도구로서의 브라질 문학’이라는 견지에서 정체성의 추구라는 끈질긴 자기확인 노력이 브라질의 역사와 사회에서 특별히 갖고 있는 의미를 부각시키고자 한다.

II. 정체성 탐구의 문제

한 사회를 전체적으로 조명하려는 시도, 그 사회에 고유한 동질성을 부여하려는 노력, 자신의 역사에 통일성을 부여하고 이를 기억하도록 촉

구하는 작업등은 문학을 통해 깊이 있게 그리고 포괄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 문학작품 혹은 문학 현상과 사회와의 관계를 연구하면서 문학작품의 형식과 내용의 충위에서 사회적 의미를 읽어내려는 문학사회학자들이나, 포괄적 의미에서의 문화현상을 연구하는 문화연구자들에게 있어서 문학은 집단의 문화를 예민하게 보여주는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브라질의 문학적 소산들을 하나의 관점을 통해 고찰하고자 하는 시도는 현대의 브라질과 그 문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먼저 브라질문학의 중요한 특징을 정체성의 추구라는 측면에서 파악하고, 브라질의 문학사를 정체성 획득의 역사를 이해하고자 한다. 정체성이라는 개념은 개인 혹은 동일한 문화나 세계관을 공유한 집단을 개별화시키는 통일성의 원리로서 규정된다.

개인의 차원에서건 집단의 차원에서건 정체성은 항상 타자를 상정해서 성립되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그것은 타자로부터 나를 대립시키는 구별의 원리라고 할 수 있다. 그 구별의 요소들은 구별의 행위가 발생하는 역사적 시점, 그 시점에 대한 개인 혹은 집단의 이해 정도 그리고 타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파악하느냐 하는 점들로 이루어진다. 말하자면 정체성은 불변의 것이 아니라, 시대나 구성원들의 인식의 변화에 따라 변화해 가는 가변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한 사회집단은 역사의 흐름에 따라 변화할 수밖에 없고, 변화의 시기마다 각각 다른 방식으로 자신들을 규정짓는다. 이러한 행위는, 어느 일정한 시점에서 자신들의 집단적 꿈과 열망을 대변하는 가치들의 체계를 세우는 것과 다르지 않다.

1. 신화의 기원

일반적으로 한 집단의 삶은 현실을 기초로 하되 또한 자신의 근원을 주관적으로 기억하고 또 자신의 운명을 과감하게 개척하도록 만들어주는 집단 특유의 신화를 창출하면서 성취된다. 이때의 신화란 현실인식을

포함하면서 동시에 그 인식의 한계를 초월하여 용기, 신념, 불안 등의 인간 내면의 정서적 요인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탄생하는 것이다. 결국 신화란 한 집단의 상상력이 구체적인 현실에 직면하여 만들어내는 꿈의 총체적 표현인 셈이다. 그것은 집단적 몽상이란 언제나 현실로 구현되기를 꿈꾸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오늘날의 브라질과 같이, 발견과 함께 제국주의의 식민이라는 역사적 역경을 경험하였고 또한 적지 않은 식민 본국의 문화적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겪고 있는 사회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면, 역사학적, 사회학 그리고 정치적 등의 연구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그 집단의 신화를 외면하고는 브라질 사회의 본질을 규명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생각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브라질 사회에 대한 연구는 통시적으로 드러난 기록된 역사와 공시적으로 혼돈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현상인 한 문화집단에 대한 객관적 기술이 아니다. 우리가 이야기하여야 할 것은 이러한 역사를 움직이게 하는 근원적인 힘의 정체가 무엇이고, 그 원동력이 어디서, 또 어떻게 표출되는가 하는 점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한 문화의 기층에 자리하는 근원적 힘이 구체적인 형상으로 제시되는 것이 바로 신화라는 생각에서 여기의 논의는 출발한다.

그렇다면 신화는 누가 만드는 것인가? 그 집단의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꿈꿀 수 있는 권리가 있겠지만, 그래도 이를 생산하고 체계화하는 일의 그 첫 번째 둑은; 집단이 열망하는 '신화의 내용'을 현실의 인물이 아니라, 이와 같은 '신화 내용'을 형상화하는 예술가들, 다시 말해 그 집단의 구성원들의 무의식 속에 잠재해 있는 불안과 욕망에 궤적인 모습을 부여함으로써, 이를 집단 구성원들이 가시적인 모습으로 공유할 수 있게 해주는 시인과 소설가로 대표되는 사람들이 담당할 것임은 자명하다고 하겠다. 이들이 부르는 노래와 이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그들의 내면 세계가 갈구하고 있는 바와 함께 삶의 조건이 그들에게 운명 지워준 슬픔과 기쁨을 어떻게 꿈꾸며 살아가는가를 가장 구체적으로, 그리고 가장

심충적으로 드러내주는 것이 된다. 따라서 이들의 언어를 통하여 하나의 문화집단은 정체성을 노정하는 것이며, 이를 토대로 이들 집단은 자신들이 속한 사회를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고 정의하게 된다.

2. 낭만주의문학의 정체성 추구

오늘날의 브라질인들이 자신들을 포르투갈의 식민지 피지배자로서가 아니라, 아메리카 신대륙에 이식된 이베리아인(포르투갈인)으로 시작하여, 점차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브라질인으로 변모되어 원주민, 인디오와 혼혈인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기까지에는 많은 역사적 우여곡절이 있었다. 포르투갈의 강압과 착취의 식민정치역사에 시달리며, 포르투갈인들의 언어적·문화적 동화정책을 견디어 오는 동안에 브라질은 자신들의 독자적인 문화적·문학적 자율성을 구축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노력은 그들의 삶의 전체에 걸쳐 깊게 뿌리내리고 있었다.

포르투갈에 대한 언어적·문화적 피식민 의식과 역사를 통해 온 정치적·경제적 식민통치를 극복해 가는 과정이 브라질의 역사를 규정지어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브라질에서 진정한 민족주의 문학의 시대가 개막되고 낭만주의라는 유럽의 신사고가 유입되기 시작한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 브라질은 역사·사회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예술과 문학의 차원에서 독립국가로서의 진정한 가치 찾기에 몰두하였던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문학비평가인 주제 아데랄두 가스펠류 *José Aderaldo Castello*는 “근본적으로 민족주의 성향을 지닌 낭만주의는, 그때까지 잠재 상태에 있던 인간의 열망을 반영하듯, 그들의 개인주의와 감정을 표현하는데 적합한 수단이었다. 그 결과 낭만주의는 각국의 자연과 사회상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그리고 그 나라의 전통과 민족적·역사적 가치들을 고양하는데 있어서 객관적인 영감을 얻을 수 있는 테마에 몰두하였다. 따라서 정치·경제·사회적 개혁의 여파를 심하게 겪고있던 시기에

갓 태어난 신생 국가의 애국적 열망을 확산시키는데 있어서나 그들 자손들이 지녔던 민족주의의 열망을 고양하는데 있어서 낭만주의는 가장 유익한 매개체였던 것이다.”⁵⁾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민족주의적 낭만주의는, 진정한 브라질식 문학을 창조하고자 했던 문인들을 자극하였고 그들은 그때까지 브라질 문학에 직·간접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던 포르투갈의 표현 양식에 반대, 브라질 국민이 쓰는 언어를 접목시키기 시작하면서 자신들의 특수성을 공고히 해나갔다. 비록 그와 같은 시도가 당시에는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어도 그들의 의식과 시도는 20세기에 들어 자국민의 언어를 통한 진정한 민족 문학을 꽂피우고자 했던 여러 문예운동의 밑거름이 되었으며,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서 브라질의 문학은 브라질인들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자신이 누구인가를 표현하고자 하고, 그 점을 말하고 싶어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실천해 온 브라질인들의 노력이 문학작품 속에서 형상화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낭만주의의 혁명은 역사·사회적인 차원에서 뿐 만 아니라 예술과 문학의 차원에서도 브라질의 진정한 가치를 찾고자 했던 여러 시도들의 출발점이 되었으며, 이 시대를 기점으로 그때까지 포르투갈에 종속되어 있던 브라질의 문화를 해방시키려는 노력이 본격화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브라질의 낭만주의는 단순히 예술적, 문학적 차원의 혁신 운동이었기보다는 식민지 종주국인 포르투갈의 전통과 문화의 지배에서 벗어나려고 한 구체적이고도 독창적인 문화운동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브라질인들이 추구해온 탈식민화 과정은 ‘새로운 인간의 진정한 탄생’이라는 정체성 획득의 과정과 일치하면서, 억압적인 낡은 세계를 해체하고 그 자리에 근원의 낙원 같은 세계를 건설하려는 집단적 열망의 표현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19세기에서 20세기에 이르는 브라

5) Y., Fujiyama, *História da Literatura Brasileira*, São Paulo, Ática, 1975, p. 75.

질 문학작품 속에서 다양하게 표현된 공통된 집단적 열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한 집단의 정체성의 의미는 가변적인 것이고, 그것은 시대적 상황에 대처하는 집단의 열망이나 가치 체계 혹은 이데올로기의 변화에 좌우될 수 있는 것이다. 19세기 전체를 관류하고 20세기에 이르는 동안 브라질 사회를 이끌었던 지배 이데올로기는 카톨릭 정신에 입각한 이상적인 민족국가, 즉 '브라질다운 브라질'(*O Brasil brasileiro*)의 건설을 위한 보편적 특징(*Característica Universal*)의 이데올로기였다.⁶⁾ 19세기의 브라질문학은 포르투갈문학을 모방하는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반(反) 포르투갈 정서로 비롯되는 민족주의 열정이 안정되어 가고 있는 양상을 보이며 애국심과 사회 현안에 대한 관심 그리고 낙관주의와 선명성으로 가득 찬 새로운 서정주의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낭만주의시대의 주요 작가들, 즉 곤살비스 지 마갈랑이스 *Gonçalves de Magalhães*에서 시작하여 곤살비스 지아스 *Gonçalves Dias*, 알바리스 지 아제베두 *Álvares de Azevedo*, 까스뜨루 알비스 *Castro Álvares* 그리고 본 논문에서 살펴보게 될 주제 지 알렌까르 *José de Alencar*에 이르기까지 이들 작가들은 정치·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탁월한 종교적 감성과 열렬한 애국심으로 무장하여 민족주의와 신(神) 그리고 자연을 찬미하며 한편으로는 바이런 *Lord Byron* 풍의 운명론과 다른 한편으로는 빅토르 위고 *Victor Hugo*의 새로운 인간관과 서정성을 이상으로 삼아 박애정신을 작품 속에서 형상화하였다.⁷⁾ 이들의 이러한 문학적 대응은 당시의 포르투갈 문화와 문학에 대

6) 브라질 모더니즘 운동의 변화의식은 브라질의 고유한 현실에 대한 복합적인 개방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무엇보다도 현대의 상황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고 현실의 가장 적절한 접근방법으로서 사회모순을 공공연하게 폭로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반영하였다. 이러한 주체적이고도 인간적인 발전이 요구하는 민족적이고도 문화적인 삶의 확대와 상승을 유발하는 의미로 보편적 특징이라는 용어는 내적 세계관의 변화와 그의 창조라는 관점에서 이해되어질 수 있다.

7) 특히 시(詩)의 부문에서 브라질 낭만주의는 크게 3단계로 전개되었다고 볼 수 있

한 비판 내지 저항의 표현임과 아울러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도피적인 표현의 양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브라질 사회와 브라질인들이 그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추구하며 획득하고 또 내면화시키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1830년 낭만주의의 태동과 함께 원주민 인디오를 보다 가치화하고 그들을 재인식하고자하는 의도에서 그들을 주제로 한 문학 장르로 새로이 자리잡게 된 ‘인디아니즈무’(Indianismo)와 그 사상의 대표적 선구자인 소설가, 주제 지 알렝까르⁸⁾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그

다. 제 1단계는 민족주의와 신(神) 그리고 자연을 찬미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제 2단계는 영국의 낭만파 시인 Lord Byron의 영향을 받은 개인주의가, 그리고 제 3단계는 박애주의 정신이 주된 테마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인위적인 구분에도 불구하고 낭만주의 시기 내내, 알바리스 지 아제베두 등과 같이 유럽 양식에 심취한 몇몇 작가에게서조차도, 모티브와 언어 면에서 브라질의 혼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부분과 관련하여, 이광윤 외, 브라질 문학사, 부산, 부산 외국어대 출판부, 1998년, pp. 85-102 참조.

- 8) 세아라Ceará주(州)의 마세자나Macejana에서 출생한 주제 지 알렝까르José de Alencar(1829-1877)는 싸옹 빠울루 법대를 다니는 과정에서 문학을 접하게 되어 많은 습작활동을 벌였으나 이 당시 그의 작품들은 거의 출판하지 않았다. 졸업을 한 뒤 허우 지 자네이루에 정착하여 《상업 신문》Jornal do Comércio紙에 기고하기 시작했으며, 《허우 일보》Diário do Rio誌를 통해서 그의 첫 소설인 『오분간』Cinco Minutos를 연재 소설로 출판하였다. 1856년 Ig라는 필명으로 곤살비스 지 마갈랑이스Gonçalves de Magalhães의 시(詩) 『따모이우족의 반란』A Confederação dos Tamoios을 신랄히 비판,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이듬해 그는 소설 『과라니』O Guarani를 쓰면서 세인들에게 널리 알려졌으며 이때부터 문학뿐만 아니라 정치에도 큰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자신의 고향인 세아리주의 하원의원으로 출마하여, 당선되었으며, 이파보라이Itaborai 내각에서 법무장관직을 역임하였다. 그러나 1869년 상원의원에 출마하여 낙선하면서 정치일선에서 은퇴, 가족과 문학에만 전념하기 시작한다. 그 뒤 결핵으로 사망할 때까지 8편의 소설을 집필하였는데 그의 작품은, 『과라니』, 『이라세마』Iracema, 『우비라자라』Ubirajara (이상 인디아니즘 소설), 『은광산(銀礦山)』As Minas de Prata, 『마스까찌스 전쟁』Guerra dos Mascates, 『고서적』Alfarrábios (이상 역사 소설), 『남부인(南部人)』O Gaúcho, 『오지인(奥地人)』O Sertanejo, 『이빼나무 줄기』O Tronco do Ipê, 『떨』Til(이상 항토주의 소설 Romances Regionalistas) 등과, 『오분간』, 『젊은 미망인』A Viúvinha, 『女神』Diva, 『루씨올라』Luciola, 『귀부인』Senhora, 『가젤라의 암오리』A Pata da Gazela, 『빛나는 꿈』Sonhos d'Ouro, 『화신(化身)』Encarnaçāo(이상 도시 소설) 등이 있다. 그 외에도

의의가 크다 하겠다.

III. 기원의 형상화: 주제 지 알렌까르(*José de Alencar*)와 '인디아니즈무'(*Indianismo*)

리퀘르가 주장한 것처럼 정체성의 문제는 언제나 서술(이야기, 담화)의 행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만⁹⁾, 그것은 라틴아메리카와 같이 이제 막 주목을 받기 시작하는 주변국가의 문학, 특히 그 주요 관심사가 이야기 속에 그들 공동체의 명백한 또는 암시적인 정체성의 정의를 제공해주는 문학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집단적인 기억의 또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민족적 의도를 명백히 표현하며 공동체의 기원적인 신화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여기는 문학은, 민족적 동일성과 동질성 또는 민족중심적 정체성의 건설을 영원하게 하려는 신성하고 단일적인 기능을 갖고 있으며 이렇게 하여 현실을 단일한 관계의 뼈대로 제한하게 되는 것이다.

브라질에서는 아직 포르투갈의 식민지배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18세기와 19세기 낭만주의 시대의 기원적 서사시가 나라의 신화를 회복하고 공고히 하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소위 '순진한 의식'을 가리키는 경전적 힘으로서 작용하였다. 이와 같은 수준에서 브라질 문학은 순수한 자신의 목소리를 배제시킨 원주민, 즉 인디오의 만들어진 이미지를 융합할 수 있었으며, 이는 바로 독창적인 브라질의 민족적 의도의 건설과 가장

연대기』들을 모아 놓은 『고통의 연속』*Ao Correr da Pena*, 곤살비스 지아스 *Gonçalves Dias* 풍의 시 『뚜빠옹의 자식들』*Os Filhos de Tupã*, 연극작품인 『다정한 악마』*Demônio Familiar*, 『앞과 뒤』*Verso e Reverso*, 『천사의 날개』*As Asas de um Anjo*, 『어머니』*Mãe*, 『예수회원』*O Jesuíta* 등이 있다.

9) A identidade não pode ter a forma diferente daquela forma narrativa, pois definir isso mesmo é, na última análise, narrar. Ricoeur, Paul, *Tempo e Narração*, São Paulo, Ática, 1986, p.327.

맥을 같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으로 1920년대의 모더니즘운동은 민족적 정체성의 문제를 탈경전화로 생각하고 다른 나라의 문화와의 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 차별성 또는 변별성을 향해 계속해서 열려있는 퍼스펙티브를 보여주었다고 말할 수 있다.

특별한 역사적인 시대에 문학은 공동체를 기원적 신화나 그의 상상성 또는 그의 이데올로기 주변으로 단일화시키는 경향이 있으며, 그것은 곧 타자(*Other*)의 그릇된 해석이나 체계적인 은폐를 실행시키는 “배타적인 목소리”를 만들어 내거나 또는 추론적인 동질성으로 이끌게 된다. 브라질의 경우에서도 이러한 타자는 때때로 주변적(혹은 경계적) 공간을 대표하고 다소 변형적인 퍼스펙티브를 지니고 있는 인디오와 아프리카-흑인 혼혈인으로 대변되고 있다.

이러한 신성한 경전적 또는 기념비적 기능은 모든 서사시의 신성한 기원을 상기시키고 있으며 이와 함께 문학실행의 이데올로기적 원칙을 공고히 하고 있다. 서사시든 비극이든 이러한 경전적 기능 내에서 문학은 민속이나 퇴보되기를 원하지 않는 한 차별성 있는 문화와의 관계를 의미해야 한다. 자신의 글쓰기 작업을 기원의 신화와 자신의 뿌리 찾기에 접근하기 위해 헌신하는 작가들은 국가의 이상 건설을 시도하게 되는데, 이는 문학이 국가를 만들고 또한 국가가 문학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할 수 있다.

1. 서사시에서의 인디오의 형상화

브라질문학의 역사를 돌아보는 일은 문학적 표현으로서의 초기 글쓰기의 인식과 민족문학으로서의 이러한 표현들을 구조화하는 부차적 과정으로부터 시작하여 이들을 연구와 지식의 객체로서 변형하기까지의 연이은 단계들을 동일시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문학적 표현이 체계의 유기체적인 특징을 획득하였던 시기인 18세기에는 적어도 그러하였다.¹⁰⁾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각각의 시대가 민족문학의 건설이라는 시대의 의미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그 패러다임을 기술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18세기부터 20세기까지 문학과 역사의 단절과 불일치의 난해한 과정을 통하여 문학이 그 시대의 지배적인 담론으로 변형되기까지의 과정 속에서 드러난 강한 응집력의 원칙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서사시야말로 신화적인 요소에 영웅 또는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강력하고 우월한 힘을 가진 존재'의 위업을 가미시킨 근원적 역사사건의 서술에 대한 가장 적당한 장르임에 틀림없다. 이 장르는 정체성 형성과정의 초기 단계에 있어서 공동체 구성원들을 단결시킬 수 있는 응집력의 최소 초점의 형성을 위하여 기본이 되는 기념비적 기능을 하게 된다. 서사시에는 특히 토착주의 또는 애향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나티비즈무(*Nativismo*)¹¹⁾ 정서가 가장 확연히 나타나고 있는데, 이 시대의 서사시에는 아메리카 대륙의 풍경과 역사적 사건들 그리고 원주민 인디오들의 전설과 인물들이 신고전주의적 표현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특히 '인디아니즈무'(*Indianismo*)의 경우 당대 학파가 이상으로 여겼던 자연 속의 인간과 비문명적이며 원시적인 아메리카 대륙의 풍경이 서로 조화로운 관계 속에서 그려지고 있다. 이러한 표현의 중심에는 브라질 인디오들이 자리잡고 있으며 이는 신고전주의적 기호를 충족 시켜주는 것이기도 하였다. 다시 말해 유럽인들이 이상으로 갈구하였던 것을 브라질은 원초적으로 간직하고 있었으며 이 때문에 당대 브라질 시에서는 자연의 풍경과 차한 비문명인인 인디오들이 약간의 이

10) Cândido, Antônio. *Formação da Literatura Brasileira*, Vol. I, São Paulo, Martins, 1964, p.45.

11) 영어로 *Nativism*, 우리말로 토착주의(土着主義) 또는 원시주의(原始主義)로 번역되는 이 용어는 17세기초 네덜란드인들이 북동부 지방을 침략하여 무력 점령하자 브라질 국민들이 지식인들과 토후 귀족들을 중심으로 힘을 합쳐 이들에게 대항하면서 생겨난 말이다. 이 운동은 차후 브라질 토착민들의 반 포르투갈 정서와 합쳐지면서 브라질 민족주의로 승화되는데 문맥에 따라 애국, 또는 애향심으로도 번역될 수 있다.

상주의적 표현을 빌어 구체적으로 구현될 수 있었던 것이다. 여기서 또 하나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당대 브라질의 서사시에는 이미 포르투갈어권 문화에 확고히 자리잡고 있었던 포르투갈의 대서사시인 까몽이스 *Camões*의 영향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는 사실이며 이러한 경향은 무엇보다도 주제 바질리우 다 가마 *José Basílio da Gama*(1740-1795)의 대표적 서사시 『우라파이』(*Uruguai*)와 쌌따 히따 두리옹 *Santa Rita Durão* (1722-1784)의 대표작 『까라무루』(*Caramuru*)에 잘 나타나 있다.¹²⁾

이들 두 개의 서사시는 포르투갈 정복자의 영웅적 업적을 찬양하는 내용 외에 공동의 문화적 뿌리를 창조하고 민족적 정체성을 상징화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아메리카 대륙의 지리를 찬양하며 그 자연을 주요한 주동인물로 설정하고 있다. 즉 유럽 식민지배자의 영웅적 업적을 찬송하는 이들 서사시의 주된 의도는 아메리카대륙의 불가사의한 성격의 힘에 의해 방해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들 시인들은 자연을 전통적 서사시 장르에서처럼 단순한 풍광의 배경으로 소개하는 대신에 시적 언술의 근본 요소로 적고 있다.

2. 주제 지 알렝까르와 ‘인디아니즈무’

2.1. 주제 지 알렝까르의 작품세계

브라질 최대의 낭만주의 소설가로 추앙 받고 있는 주제 지 알렝까르는, 또 다른 낭만주의 소설가 주어킹 마누엘 지 마쎄두 *Joaquim Manuel de Macedo*(1820-1882)가 브라질 소설의 기반을 닦았다면, 그것을 예술의 경지로 승화시킨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즉, 아직 아마추어 수준에 머물던 브라질의 소설을 한 수준 끌어 올렸을 뿐만 아니라 브라질 국민이

12)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본인의 논문, “브라질의 문화적 독창성에 관한 연구 - 18 세기 문학의 정체성 탐구를 중심으로”, 『이베로아메리카연구』제1집, 부산외대 이베로아메리카연구, 1999. 2, pp.77-85를 참조.

실생활에서 쓰는 언어를 소설에 도입, 그것을 진정한 브라질 민족문학으로 탈바꿈시켰던 것이다. 그의 작품, 『이페나무 줄기』에 나오는 다음을 구절을 보아도 그가 브라질 국민이 쓰는 언어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었는지 알 수 있다.

“어린이들의 언어처럼 흑인들의 언어는 아주 종종 비이성적인 면을 보여준다. 화자의 끊임없는 변화가 바로 그것으로, 흑인들은 아주 쉽게 ‘그’에게서 ‘너’로 넘어간다. 만일 우리가 그런 불규칙을 고치려 한다면 그것은 그 독특한 문장이 지니는 창조적이고도 생생한 톤의 일부를 지우는 결과가 될 것이다.”¹³⁾

또한 그의 모든 소설에서는 이따금 세심한 관찰에서 탈피하여 상상이 우선하는 특징이 나타나기도 한다. 특히 세심한 관찰은 도시소설에서 자주 만날 수 있는 가정의 풍습과 분위기 묘사에 적용되지만, 그가 소설가로서의 재능을 가장 잘 발휘한 곳은 바로 상상력이 보다 자유로이 활동하는 작품에서였다. 그래서 그의 스타일은 시적이며 서정적이며, 상상력에 의해 표현된, 자신의 세계관을 바로 그렇게 옮겨 놓고 있는 것이다.

비평가인 주제 아데랄두 까스텔루José Aderaldo Castello는 “그가 쓴 소설들은 브라질 민족성의 역사적 형성 내역을 풀이하고자 하는 하나의 시도임과 동시에 우리의 자연 풍경, 사람 그리고 환경에 대한 서정적인 시각을 표현하고 있다.”¹⁴⁾라고 평하였다. 또 다른 비평가는 그가 소설을 통해 식민시대에서부터 제 2 왕조까지 브라질 사회의 다양한 면을 보여 주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의 소설을 읽다보면 당시 사회의 관습, 유행, 언어, 사람, 정치 및 사회관념 등 역동적으로 움직이며 살아가는 사람들 의 세계, 다시 말해, 센티멘탈하고도 낭만적이며 나아가 현실주의적이기도 한 당시 브라질 국민들의 생활상을 확연히 관찰할 수 있다고 한다.

13) Alencar, José de, *O Tronco do Ipê*, São Paulo, Instituto de Divulgação Cultural, s/d, p.26.

14) Y., Fujiyama, Op.cit., pp.69-70.

이처럼 그는 오로지 브라질 국민의 삶만을 깊고 강렬하게 다룬 진정한 의미의 브라질 작가였던 것이다. 그런 이유로 그의 문학 저변에는 순수하게 브라질적인 민족 문학을 실현하겠다는 의지와 사상이 깔려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알렝까르는 브라질 민족문학의 단계를 자신의 작품을 통하여 크게 3 단계로 구분, 설명하고 있다. 즉, 첫 번째 단계는 원시적이고 토착적인 단계로, 이는 정복된 야만의 땅이 안고 있는 신화와 전설 그리고 그곳 사람들의 유년시절을 생각나게 하는 전통에 의해 특징 지워지는데 이 단계에 속하는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이라세마』가 있다. 두 번째 단계는 역사적인 단계로, 정복을 위한 침략자 백인이 미주대륙을 점유하고 유럽의 문화를 전파하여 놀라운 신대륙의 미지와 처녀성과 같은 자연을 동화시키는 이른바 ‘미주대륙인의 지체된 수태’를 가능하게 하는 단계로 이 시기는 독립과 함께 끝이 나게 된다. 이 단계에 속하는 알렝까르의 작품으로는 『파라니』와 『은광산』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1820년 대 브라질의 정치적 독립과 함께 시작되어 아직 끝나지 않은 브라질문학의 유아기(幼兒期)로서, 이 시기는 작가들로 하여금 진정한 민족주의에 대한 기호를 형성하도록 고취시키는 단계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이에 속하는 작품으로는 『이빼나무줄기』, 『ليل』 그리고 『가우슈』와 같은 것들이 대표작으로 꼽힌다.

주제 지 알렝까르는 브라질의 민족적 정체성을 상징화하려는 자신의 의도를 인디오를 주제로 한 소설,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컫고 있는 인디아니즈무소설, 특히 『이라세마』와 『파라니』로 대변되는 작품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 인디오와 백인사이의 최초의 접촉이 이루어진 시대의 쎄아라 주(州)지방의 전설을 다룬 『이라세마』와 정복전쟁 당시 백인과 함께 공존하는 이미 개화된 인디오를 보여주는 『파라니』에서 그는 식민화 초기시기와 일치하는 과거시대에 등장인물을 설정하고 유럽의 백인 정복자와 인디오와의 첫 번째 폭력적인 충돌을 그리고 있다. 살육의 정복 앞에 놓인 조화롭고 낙원의 평화로운 정경의 땅, 야만의 그러나 순수한

인디오의 실제적 표현 그리고 언제나 자연적인 야만성을 칭송하는 작가 자신의 민족적 자부심 등이 이를 소설 속에 자세히 표현되고 있는데, 그 문체 또한 브라질이라는 국가의 자연적이며 지방적인 면면들의 가치화가 브라질의 과거에 대해 보상을 하려는 강한 도취감의 의식으로 특징 지워지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세 개의 소설에서 원주민, 인디오는 곤살비스 지아스의 인디아니즈무적 시각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작가 스스로가 말했듯이, “소설『파라나』에서 원주민은 작가가 시로 표현하고자 하는 이상적 인물이다. 이를 위해 작가는, 연대기 작가들이 인디오에게 씌워 놓은 거친 선입견을 벗겨야 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거의 소멸해가는 종족의 조폭한 잔존자들이 퍼붓는 조롱으로부터 그를 구해야 할 것이다.”¹⁵⁾고 말한다.

브라질의 역사는 『은광산』과 『마스까찌스의 전쟁』에서 잘 언급되고 있다. 특히 『은광산』에서는 17세기 바이아주를 배경으로 탄생한 황금의 도시 엘도라도의 전설이 다루어졌으며, 『마스까찌스의 전쟁』에서는 식민지사에 큰 획을 그은 동명(同名)의 사건을 소재로 다루면서 당시 이 사건의 배경이었던 토착주의 정신이 브라질 국민들 사이에 싹트고 있음을 전하고 있다.

그리고 그의 향토주의 문학에는 브라질의 주요 지역이 회화(繪畫)적으로 재구성되어 있으며 그들의 풍습과 민속 등도 잘 표현되어 있다. 특히 『남부인』에서는 남부 초원지대의 사람들과 풍습이, 그리고 『오지인(奥地人)』에는 세아라 지방이 그려져 있으며 『이빼나무 줄기』와 『ليل』에서는 당시 히우 지 자네이루와 싸옹 빠울루의 풍습이 잘 묘사되어 있다. 아울러 도시소설(*romance urbano*)에서는 당시 궁정에 사는 여인들의 모습과 이들의 사랑을 통해 제 2왕조 시대의 히우 지 자네이루의 사회상을 그리고 있다. 비평가인 오스까르 멘지스Oscar Mendes는 이를 두고 “낭만주

15) Cândido, António, Op.cit., p.152.

의 시대에 사랑이 빠진 소설이란 이해 될 수 없었던 만큼, 알렝까르의 모든 도시소설도 사랑에 관한 소설이라 할 수 있다. 당시의 낭만적 사고 방식이 그려했듯 그때의 사랑은 승화되고 이상화된 사랑으로 체념과 희생 그리고 영웅주의를 포함하여 범죄까지도 가능한 그런 사랑이었다. 하지만 그 사랑은 그 내부에 잠재해 있는 강렬함과 열정의 정화력(淨化力)에 의해 스스로를 속박하지 않는 그런 사랑이었다.”¹⁶⁾고 말하였다. 또 한가지 염두에 두어야할 것은 여기 저기 나타나는 심리 묘사의 사실주의적 성격 때문에 이러한 도시소설들은 사실주의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단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2.2. ‘인디아니즈무’(*Indianismo*)

브라질의 낭만주의는 특히 소설장르에 있어서 역사적 낭만주의와 현실적 낭만주의 그리고 ‘인디아니즈무’적 낭만주의의 세 가지의 경향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역사소설의 경향은 ‘인디아니즈무’를 주제로 한 소설로부터 짹트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브라질의 역사소설은 다른 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역사적 에피소드(*Historical Episode*)를 찾고 있을 뿐 아니라 작품 속의 주인공의 성격이나 심리묘사 또는 그에 대한 생활환경, 공감을 줄만한 역사적 사실이나 교훈 등을 소재로 하고 있다.

역사소설은 주제 지 알렝까르의 작품 『파라니』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인디오를 주제로 한 ‘인디아니즈무’소설과의 관계는 역사소설의 한 부류가 원주민 인디오 역사소설이라는 것이다. 즉 브라질 역사의 초창기에 인디오의 역사는 별개로 나뉘지는 것이 아니고 이를 주제로 한 작품 역시 역사적 전설이나 사실을 소설화한 것이므로 브라질의 역사소설의 한 부류라고 보는 것이다. 이는 알렝까르의 소설 『파라니』와 『이라쎄마』가 각각 전설이나 역사적 에피소드를 소재로 하였기 때문에 증명되고 있다.

16) Ibid., p.153.

‘인디아니즈무’는 낭만주의자들이 순수한 브라질적 민족문학을 실현하겠다는 의지 하에 “식민 본국인 포르투갈의 문학과 브라질의 그것을 차별화 시키고 브라질의 독창적인 특징으로 성격을 규명하려는 의도”¹⁷⁾에서 비롯되었다. 즉 문학에 야만상태의 원주민 인디오를 보다 가치화하고 그들을 재인식하여 새로운 문학의 한 장르로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알렝까르를 비롯하여 이를 낭만주의자들이 구태여 원주민 인디오를 주제로 작품을 쓴 것은 다른 미주대륙의 국가들처럼 그들에게 있어서도 인디오들이 브라질의 문화와 종족구성에 중요한 역할을 행하여 왔기 때문이다. 또한 인디오의 언어에 대한 연구는 문학적으로 뿐만 아니라 언어학적인 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고 원시적 언어의 단순성이 내포하는 함축적 의미를 깨닫는 것은 작가들의 주요 관심사였다.

이들 ‘인디아니즈무’적 낭만주의자들의 생각에 한층 더 도움을 준 것은 당시 유럽을 지배하고 있던 루소의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사상이었으며, 이에 영향을 받은 브라질 낭만주의자들의 야만인의 가치화와 심미화 운동의 사상은 그들이 유럽식민자들과의 투쟁에서 승리와 자유를 얻기 위해 희생적으로 싸우던 인간적인 면과 역사적인 면을 재인식하면서부터 시작되었고 바로 그들 인디오의 생활풍속과 언어, 사랑, 갈등 등을 소재로 한 소설의 장르가 바로 ‘인디아니즈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생각에 낭만주의자들은 원주민 인디오를 주제로 작품을 쓰게 되었으며 시(詩)에 있어서는 까스뜨루 알비스 Castro alves(1847-1871), 소설에 있어서는 알바리스 지 아제베두 Alvarez de Azevedo(1831-1852)와 본고에서 논하고 있는 주제 지 알렝까르가 특히 이에 전념하였다.

가장 뛰어난 ‘인니아니스따’(Indianista)로서 ‘인디아니즈무’를 통하여 브라질의 민족문화 형성에 커다란 공헌을 한 알렝까르는 자신의 작품, 『파라니』와 『이라쎄마』 그리고 『우비라자라』에서 초창기 브라질의 각각

17) Fontana, Dino F., *Literatura Brasileira*, Edições Saraiva, São Paulo, 1968, p.49.

다른 측면을, 즉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언어학적인 면에서 적절하게 다ansom으로써 순수하게 브라질적인 민족 문학을 실현하고 브라질의 민족적 정체성을 상징화하려는 자신의 의지와 사상을 통하여 브라질의 국민문화 형성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알렝까르는 바로 ‘인디아니즈무’를 통하여 초창기 브라질 개척시대의 정신을 브라질인들의 가슴에 심어주며 개척 당시의 역사와 브라질의 형성과정을 알 수 있게 해주었으며, 그들의 생활풍속과 습관 등을 통해서 전통문화를 계승하게 하였으며, 그들이 사용하는 포르투갈어를 낭만주의의 사고로 아름답게 묘사하여 브라질에서의 포르투갈어의 변천사를 알게 해주었으며, 특히 원주민 인디오들이 사용하는 토속 인디오 언어의 많은 인용은 포르투갈어에 어휘상의 풍부함을 갖게 하였던 것이다. 이에 대해 평론가 마누엘 반데이라Manuel Bandeira는 “인디아니즈무는 낭만주의 작가들에 의해 잘못 심어진 이국적인 식물이 아니라, 대중문학에 깊게 뿌리를 내린 잘 가꾸어진 나무이며, 인디오의 이상화(理想化)는 완전하게 국민정서에 일치한다”¹⁸⁾라고 말하고 있다.

2.3. 알렝까르에 있어서 신화의 형상화 문제

앞에서 언급하였지만, 역사와 문화의 혼성(混成) 현상은 브라질 문학의 형성 초기 이후부터 특징 지워져왔으며, 또한 낭만주의 시대를 통하여 그 특징이 의미심장하게 현재 해왔다. 그리고 그러한 성격 안에서 작가들은 ‘브라질 민족의 지체된 수태 혹은 성숙’(*a gestação lenta do povo brasileiro*)를 위해 기여하고자하는 자신들의 의도를 개방적으로 표현해 왔다.

브라질의 도취적 표현에 있어 작가들로 하여금 민족주의적 공간을 상징화하도록 이끌었던 것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 초기 단계는, 기원과 뿌리, 근본 신화 그리고 계보 등의 소모적인 텍스트화에 의해 특징 지워지

18) Ibid., p.50.

는 기본적인 단계 - 주제 지 알렝까르의 작품이 그 대표적인 예 - 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알렝까르의 소설 작품은 브라질의 근원적인 두 인종, 즉 백인과 인디오의 문화 변용과 혼성에 대해 동시적인 증언을 지니고 있다.

보다 넓은 의미의 문학적 의도에서, 알렝까르는 브라질에 있어서 국가 건설의 과정을 재구성하려고 시도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당시 대부분의 작가적 낭만적 감성에 의해 특징 지워지는 이러한 의도는 브라질 '국가'의 창설적 인물의 이상화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그는 보통의 인간들보다는 우월한 자질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즉 고전적 의미에서 영웅으로 생각되어지는 사람이었다. 평론가 알프레두 보씨가 말하는 소위 '소설적 요약' (*suma romanesca*)¹⁹⁾이라는 것을 만들고 싶은 알렝까르는 18세기 앞선 작가들의 경우처럼 흑인 혼혈인 (*afro-brasileiro*)를 당시 문학에서 다소 자세히 그려졌던 모든 인간들의 전형, 즉 유럽의 백인 식민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오지의 사람들과 목축업자, 인디오 그리고 오지개척단 등과 동일한 위상을 갖게 하지는 않았다.

알렝까르의 작품은, 계속되는 세대에 의해 반복되어왔던 어떤 사상을 유효화시키고 부과하는 주도적 언술(담론)만큼이나, 사상의 분야에 있어 의미심장하게 주도적인 패러다임을 변형시키거나 불일치하게 하는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다. 이 때문에 원주민 인디오를 국민성의 상징으로 생각하는 개념에 근거를 둔 주도적 언술(담론)은 알렝까르의 작품에서 두드러지게 강화되었으며, 그 작품들은 토착민인 거주민을 '어떠한 오욕으로부터도 자유로운' 존재의 특별한 우월감을 갖고 있는 신비적 영과 마찬가지로 칭송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안또니우 깡지두 *Antônio Cândido*는, "알렝까르와 곤살베스 지아스와 함께 비로서 민족문학이 태동하였으며, 이로서 소위 '브라질 정

19) Bosi, Alfredo. *História Concisa da Literatura Brasileira*, São Paulo, Cultrix, 1976, p.151.

신' 또는 '브라질적 특질'의 표현이 가능해졌다"²⁰⁾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알렝까르 자신도 '민족문학'이라는 표현과 관련하여 1872년에 발표한 『금의 꿈』(*sonhos d'ouro*)이라는 소설의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뛰어난 인종과 함께 이곳 처녀의 땅에 이주해온 나라의 영혼을 표현하고 있는 민족문학은 그들에게 평온의 안식처를 제공하고 그리고 또 다른 민족문화와 문명의 유입을 통하여 나날이 부유해져 가는 미국적인 대륙의 수액과 수태되어 갔다."²¹⁾

에드워드 글리상은 "문학의 경제적 기능이란 '여전히 순진한 집합적 의식'의 전형"²²⁾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한 의식을 표현하는 비평가들의 어휘적 다양성 - 안또니우 깡지두는 도취감의 의식이라고 표현하는데 반하여 글리상과 다르씨 히베이루 *Darcy Ribeiro*는 순진한 의식이라고 표현 -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바라보는 관찰의 시각은 똑같다고 볼 수 있다. 즉, 다른 국가 앞에서 새로운 국가의 명칭부여에 대한 긴급함과 종종 특별한 집합체로서 보여지고 들려지는 긴급함 등이 식민지 문학의 그것과 다소 다른 이국정서의 형태에 의해 특징 지워지는 문학을 만들 어내었던 것이다.

사실 알렝까르의 소설작품은 16세기 이후 유럽의 신대륙발견자들에 의해 쓰여진 여행기문학에 의해 설정된 언술적 헤게모니에 충실하고 있다. 그의 이야기체의 주된 강조는 신대륙 거주민들, 즉 원주민 인디오의 이국적 면면의 묘사에 있다. 그러나 19세기에 들어와서는 비교적 주변적 입장에 처해진 인디오의 삶의 양식과 어려운 조건을 서술하기보다, 자신의 작품에서처럼 16-18세기의 모든 여행기문학에서 공통적이었던 용어

20) Cândido António, "Literatura e consciência nacional", *Suplemento literário de Minas Gerais* 156, 6 de setembro de 1969, pp. 8-11.

21) Alencar, José de. Preface, *Sonhos d'ouro*, Rio de Janeiro, Gamier, 1872, p. 34.

22) Op.cit., 192

를 사용하기 위해 ‘야만인’이라는 원주민의 이상화된 초상을 그리고 있다. 그가 지방색에 관심을 두고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움의 대상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이국정서’(exoticismo)는 일반적으로 외부의 관찰자에 의해 전적으로 결정된 것처럼 국가와 문화의 외부적인 가치화를 포함하고 있다.

‘이국정서’를 지배하는 원칙은 흔히 역설적이라고 말한다. 즉 타자(Other)를 알지 못한 채 타자를 찬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세밀한 지식은 이국정서와 양립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국적인 시각은 타자가 즉각적으로 그리고 명백하게 다르게 현존하는 것의 부정확하고 불충분한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일종의 찬미라고 볼 수 있다. 원주민 인디오의 경우, 유럽의 백인들을 매혹시키는 차별성은 보통 자연에 대한 그들의 상상적인 친밀성과 관련되어 있다. 고상한 야만적인 신화는 자신의 사회에 대한 간접적인 비평으로 생겨나는데, 이는 후자는 루소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패되어 있기 때문이며, 전자는 향수적으로 풍부함과 조화로 특징 지워지는 사회를 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화적 과거에 대한 평가는 알렝까르로 하여금 민족적 정체성의 구축을 확고히 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근거를 제공해 주고 있다. 소설『이라쎄마』에서, 고통의 아들인 모아시르(아름다운 인디오 여인인 이라쎄마와 귀족의 포르투갈 군인인 마르찡과의 사랑으로 태어난)는 브라질 종족의 창조적 아버지로 대변되며, 특히 신생국가를 건설하는 과정 속에서 지배계급에 대한 자부심의 원천으로 부상하게 된다. 알렝까르의 작품 분석이 대변하고 있는 것은 그의 작품이 브라질뿐만 아니라 유럽문학의 지배적인 전통(인습)에 매우 밀접하게 얹매여 있다는 사실이며, 이를 중 일부의 공통된 이상 - 귀족적 야만인, ‘자연상태’의 이상화 그리고 과거에 대한 향수적 견해 - 은 이후 다른 브라질 작가들의 이야기에 구체화되었다.

식민지적 패러다임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는, ‘새로운’, 아직은 표현되지 않은 불균형의 구조들이 주어진 사회에서 순환되고 있는 담론의 총

체를 이해하는데 매우 커다란 어려움을 갖고있다라는 ‘사회적 언술’의 가정에 따라서 그것이 실제적으로 불변함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 할 수 있다. 낭만주의가 브라질에 문학혁명을 일으켰다 라고 하는 광범 위한 신념과는 반대로, 우리는 이러한 문학운동이 담론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만치의 원칙을 넘어서지 않으며, 그리고 또한 몇몇의 작의(作意) 된 주제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어떤 패러다임의 ‘영원한 회귀’의 영속성을 발견(간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싶다. 18세기의 이야기 체의 이러한 일면들은 알렝까르의 시대에서도 변하지 않는다. 즉, 신비 스럽고 놀라움으로서의 아메리카라는 대륙적공간의 텍스트화, 과거로 향하는 향수적 태도에 근거한 시간의 개념화, 그리고 원주민 인디오의 그릇된 설명에 근거한 배타적인 담론의 구축이 바로 그것이다.

플로라 수세킨드 *Flora Sussekind*가 언급한 것처럼, “알렝까르에 있어서 이야기체 담론의 형상화는, 기원과 신화의 시발적 구조, 근원, 뿌리 그리고 초기시대에 대한 향수적 추구에 의해 눈먼 역사적이며 유전학적인 전망에 의해 특징 지워진다”.²³⁾ ‘향수’(*nostalgia*: *nostos*는 회귀의 의미)라는 단어의 그리스 어원은 ‘고향에 대한 향수로부터 야기되는 우울함(*melanchooly*)’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1930년대 대부분의 모더니스트들이 놀라운 비평의식을 가졌던 것처럼 알렝까르의 순수한 태도는, 그 자신으로 하여금 시간도 역사도 개인이든 혹은 집단적인 정체성이든 자신의 기원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게 하였으며 오히려 그 반대로 복합적인 형상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납득시키지 못하였다.

정체성 구축의 시초단계에서 원주민 인디오들에 대한 낮은 평가는 ‘타자’ 문화의 강박적인 고평가화에 의해 대치되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렝까르의 인디아니즈무적인 이야기체에서 안정화된 문학적 요소는 유럽의 정복자들이 그 땅에 도착한지 3세기 반 동안 더 이상 존재하지 않

23) Sussekind, Flora. *O Brasil não é longe daqui*, São Paulo, Companhia das Letras, 1990, P.190.

는 그것이었으며, 그렇게 하여 단순하게 그들의 조상들에게 빛나는 신화적 기원을 제공해주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라쎄마를 비롯한 피식민지배자와 마르찡이라는 식민지 배자간에 설정된 문화적 채널은 자신의 기원적 문화의 상실이라는 문화 축소(*deculturação*)와 다른 문화에 대한 적응이라는 문화변용(*acculturação*)의 이중적 과정을 만들어내었다. 그 과정은 명백하게 균등 하지는 않았으나, 식민지배자 마르찡이 지방적 관습에 집착한 반면, 지배적 문화인 그 가치는 브라질 국가의 지배적 가치로서 부과됨으로써 끝나게 된다. 결국 이라쎄마의 죽음은, 문명화라는 것이 가상적으로 유럽문화로 대변되고, 야만성이라는 것은 원주민 인디오의 문화로 대변되는 ‘문명화’와 ‘야만성’간의 대립에서 굴복한 아메리카라는 대륙적인 신화의 죽음을 상징화하는 것이기도 하다.

IV. 맷는말

오늘날의 브라질인들이 자신들을 포르투갈의 식민지 피지배자로서가 아니라, 아메리카 신대륙에 이식된 이베리아인(포르투갈인)으로 시작하여, 점차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브라질인으로 변모되어 원주민(*Índio*)과 흑인혼혈인(*Afro- Brasileiro*)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기까지에는 많은 역사적 우여곡절이 있었다. 포르투갈의 강압과 착취의 식민정치역사에 시달리며, 포르투갈인들의 언어적·문화적 동화정책을 견디어 오는 동안에 브라질은 자신들의 독자적인 문화적·문학적 자율성을 구축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노력은 그들의 삶의 전체에 걸쳐 깊게 뿌리내리고 있었다.

브라질의 역사는 적어도 문화사적인 면에서 볼 때 정체성 획득의 역사라 할 수 있다. 역사의 매 단계마다 브라질사회의 제반 여건들과 브라

질인들의 집단적 열망, 꿈 등에 의해 형성된 이러한 정체성의 표현들은 일종의 신화적 양상을 띠면서 브라질인들과 브라질 사회를 움직여 온 보이지 않는 힘이 되어 왔다. 이와 같은 의미 내용들은 문학 작품 속에서 일련의 신화적 표현들로 형상화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예가 낭만주의자들이 원주민 인디오의 가치화와 심미화 운동으로 승화하여 그들의 생활 풍속과 언어, 사랑, 역사, 갈등 등을 소재로 하여 하나의 장르로 고착화하게 된 '인디아니즈무'라고 볼 수 있다.

이들 낭만주의자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인니아니스따'(Indianista)로서 '인디아니즈무'를 통하여 브라질의 민족문화 형성에 커다란 공헌을 한 주제 지 알렝까르는 자신의 작품, 『파라니』와 『이라쎄마』 그리고 『우비 라자라』에서 초창기 브라질의 각각 다른 측면을, 즉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언어학적인 면에서 적절하게 다름으로써 순수하게 브라질적인 민족 문학을 실현하고 브라질의 민족적 정체성을 상징화하려는 자신의 의지와 사상을 통하여 브라질의 국민문화 형성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알렝까르는 바로 '인디아니즈무'를 통하여 초창기 브라질 개척시대의 정신을 브라질인들의 가슴에 심어주며 개척 당시의 역사와 브라질의 형성과정을 알 수 있게 해주었으며, 그들의 생활풍속과 습관 등을 통해서 전통문화를 계승하게 하였으며, 그들이 사용하는 포르투갈어를 낭만주의의 사고로 아름답게 묘사하여 브라질에서의 포르투갈어의 변천사를 알게 해주었으며, 특히 원주민 인디오들이 사용하는 토속 인디오 언어의 많은 인용은 포르투갈어에 어휘상의 풍부함을 갖게 하였던 것이다.

포르투갈에 대한 언어적·문화적 피식민 의식과 역사를 통해 온 정치적·경제적 식민통치를 극복해 가는 과정이 브라질의 역사를 규정지어 온 것은 사실이다. 특히 브라질에서 진정한 민족주의 문학의 시대가 개막되고 낭만주의라는 유럽의 신사고가 유입되기 시작한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 브라질은 역사·사회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예술과 문학의 차원에서 독립국가로서의 진정한 가치 찾기에 몰두하였던 것이다.

바로 민족주의적 낭만주의는, 진정한 브라질식 문학을 창조하고자 했던 문인들을 자극하였고 그들은 그때까지 브라질 문학에 직·간접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던 포르투갈의 표현 양식에 반대, 브라질 국민이 쓰는 언어를 접목시키기 시작하면서 자신들의 특수성을 공고히 해 나갔다. 비록 그와 같은 시도가 당시에는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어도 그들의 의식과 시도는 20세기에 들어 자국민의 언어를 통한 진정한 민족 문학을 꽂피우고자 했던 1922년의 모더니즘운동을 비롯한 여러 문예운동의 밑거름이 되었으며,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서 브라질의 문학은 브라질 인들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자신이 누구인가를 표현하고자 하고, 그 점을 말하고 싶어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실천해 온 브라질인들의 노력이 문학작품 속에서 형상화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위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18세기 식민지시대 특히 낭만주의 시대에 있어서 브라질 문학에 나타난 브라질의 정체성 확인과 그 과정 등을 질라 베른드 Zila Bernd가 이야기 한 다음의 몇 가지 측면으로 요약하면서 결론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경이롭고 신비적인 현실로서의 아메리카대륙 공간의 전용(*appropriation*)과 둘째, 원래의 단일성과 역사의 시초를 회복하고자 하는 열망과 일치하는 과거로의 향수적인 회귀에 근거한 시간의 개념화, 셋째, 유럽의 가치론적 패러다임에 근거한 외부적인 시각에서 신대륙의 거주민을 판단하고 그들을 거짓으로 대변한 통일체적이며 경계론적 언술의 구축, 넷째, 상징적인 영웅은 언제나 식민지배자인 포르투갈인으로 귀결되는 점, 그리고 다섯째, 백인 지배자의 문화에 대하여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인디오 타자(他者)에 대한 조소적인 태도가 식민지 문학에 나타난 대표적 특징²⁴⁾으로 볼 수 있다.

24) Bernd, Zila. "The Construction and Deconstruction of Identity in Brazilian Literature", In: *Latin American Identity and constructions of Difference*, Chanady, Amaryll (ed.),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4, pp. 86-103.

참고문헌

- 이광윤 외, *브라질 문학사*, 부산, 부산외국어대 출판부, 1998.
- _____, “현대 브라질에서의 이념적 독립성과 문학적 자율성에 관한 연구 - 모더니즘과 향토주의를 중심으로 -”, *국제지역연구* 제 1권 제 1 호, 국제지역학회, 1997, pp. 191-221.
- _____, “브라질의 문학적 독창성에 관한 연구 - 18세기 문학의 정체성 탐구를 중심으로”, *이베로아메리카연구* 제1집, 부산외대 이베로 아메리카연구소, 1999, pp.61-89.
- Bernd, Zila. "The Construction and Deconstruction of Identity in Brazilian Literature", In: *Latin American Identity and Constructions of Difference*, Chanady, Amaryll (ed.),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4, pp. 86-103.
- Bosi, alfredo, *História Concisa da Literatura Brasileira*, São Paulo, Cultrix.
- Cândido, Antônio, *Formação da Literatura Brasileira*, Vol. I, São Paulo, Martins, 1964.
- _____, “Literatura e Consciência Nacional”, In: *Suplemento Literário de Minas Gerais*, 6 de setembro, 1969, pp.8-11.
- _____, “Literatura e Subdesenvolvimento”, In: *América Latina em sua Literatura*, São Paulo, Editora Perspectiva, 1979, pp. 343-362.
- Chiampi, Irlemar, *O Real Maravilhoso*, São Paulo, Perspectiva, 1980.
- Durão, Santa Rita, *Caramuru*, Rio de Janeiro, Agir, 1957.
- Fujiyama, Y., *História da Literatura Brasileira*, São Paulo, Ática, 1975.
- Gama, José Basílio da, *O Uruguai*, Rio de Janeiro, Agir, 1964.

- Glissant, Edouard, *O Discurso Antilhano*, Petrópolis, Editora Vozes Ltda, 1983, p.193.
- Moreira Leite, Dante, *O Caráter Nacional Brasileiro*, 4 ed., São Paulo, Pioneira, 1983.
- Pinheiro, Amálio, *Aquém da Identidade da Oposição: formas na cultura mestiça*, Piracicaba, Unimep, 1994.
- Portella, Eduardo, "Literatura e Revolução em 30", In: *O Romance de 30 no Nordeste*, Fortaleza, Ed. Univ. Federal do Ceará, 1983, pp. 21-25.
- Ribeiro, João Ubaldo, *Viva o Povo Brasileiro*, Nova Fronteira, 1984.
- Ricoeur, Paul, *Tempo e Narração*, São Paulo, Ática, 1986.
- Silva, Anazildo V. da., *A Formação Épica da Literatura Brasileira*, Rio de Janeiro, Elo, 1987.
- Sussekind, Flora, *O Brasil não é longe daqui*, São Paulo, Companhia das Letras, 1990.